

藤村의 초기 詩에서 『파계』까지 고찰*

- 근대·그리스도교에의 수용 -

임 성 규**

(e-mail : pkyunok1@hanmail.net)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4. 『파계』의 그리스도교적 요소 |
| 2. 메이지 시대의 그리스도교와 찬미가 | 5. 나가기 |
| 3. 도손에 있어서의 근대 초기 그리스도교 | |

키워드 : 그리스도교(*Christianity*), 신찬찬미가(*hymn*), 교회(*church*), 선교사(*missionary*), 신교(*Protestantism*), 범신론(*pantheism*)

1. 들어가기

일본 개국 후 구미 여러 교회의 교파들은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근대 일본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근대문명의 선도자로서 도덕, 사상, 사회, 문학 위에 큰 감화를 미치고, 메이지 시대 교회가 교세에 있어서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 여론의 향도자인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메이지 문학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교와 관계를 갖고, 유치하지만 작품 속에서 언어로서 자리 매김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근대 문학자가 그리스도교에 입교, 혹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에 전념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실제로 그리스도교에 접근한 문학자들의 입교를 고려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신앙심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교에 대한 깊은 갈등·번뇌도 겪지 않고, 그리스도교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백석대학교, 부교수, 근·현대문학

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사상은 그들의 작품 속에 작은 모습으로 언어화 되어 서, 그들의 사상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문학 색깔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메이지 문학을 이야기할 때, 일본 메이지 문학자의 그리스도교에 접근과 배교(背敎)의 형태는 대략 네 개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사상에는 접근하지만, 문학자로서의 자각과 동시에 기독교를 배반하고 떠나는 경우

두 번째는 기독교 사상에서 이단적 신앙에 열중하여 심취하는 경우

세 번째는 평생 신앙을 가지고 문학과 인연을 끊는 경우¹⁾

그리스도교 문학자가 신앙에 접근하고 배교하는 과정을 이와 같이 세 개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논자는 한 가지를 더 첨부하여, 네 번째는 문학자로서의 자각과 동시에 작가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작가적 영위를 누린 경우이다. 메이지 문학을 짚어본 작가들은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교에 입교하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작가적으로 성숙할수록 그리스도교를 떠나는 자가 많았다. 또는 신앙적인 신념은 잃지 않았으나 이단적 신앙에 열중하여 심취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메이지 문학을 이끌고,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은 작가들 대부분이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교를 떠난 것이다. 신앙 고백에 의해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작가적 성숙도가 깊을수록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다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들의 대부분이 배교라는 형태로 문학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논문에서는 시마자키 도손의 초기 詩부터 『과계』를 중심으로 메이지 시대 프로테스탄트·그리스도교의 문학 상 수용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메이지 시대의 그리스도교와 찬미가

메이지 시대의 그리스도교 입문 작가들이 주로 19세기 유럽문학에서 자신의 문학의 원천을 찾았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이면서 문학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불가능했다. 더구나 그들은 신앙이 희박하기 때문에, 아무런 신앙적 대결

1) 임성규(1996) 『시마자키도손연구』 관악사, pp.2-3.

도 없이, 아무런 신앙적인 고뇌도 수반하지 않고 교회에서 물러나, 자신의 문학 세계로 돌아간 그 곳에, 그들의 이반(離反)의 성격이 있었던 것이다.

메이지유신과 함께 빠른 속도로 전도를 시작한 그리스도교는 프로테스탄트이며, 그리스도교도 또한 문명개화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마자키 도손의 『桜の実の熟する時(벚꽃열매가 익을 무렵)』에 「빛나는 얼굴을 한 청년들과 함께 많은 아가씨들이 모이는 문학회에 초청받아 참가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기분 좋게 들리는 곳에 걸터앉아 젊은 문학도들의 입술에서 영어 암송과 창가를 들었을 때에는, 거의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키시모토이고, 쿠니키다 돛보(国木田独歩)의 『그 무렵』에서, 크리스천인 기무라와 같이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가는 도중에 「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나?」라는 소리를 듣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에 일찍이 몰랐던 서양을 느끼는 듯보였다. 「화려한, 찬란한 서양 등불」, 「난로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머리카락은 어깨에 늘어져 새하얀 꽃을 핀 소녀와 다른 이들」, 「높은 천장, 흰 벽, 나지막한 단상에는 때 아닌 화초」는, 「젊디젊은 청년, 아직 사람의 마음 중 사악한 부분이나 세상의 험난한 일 같은 것은 조금도 모르고……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 청초한 것, 그리고 꿈과 같은 것을 상상하며 생각하고 있던 나」는 일본 속에서 서양을 생각하며, 마음이 격하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시마자키 도손과 쿠니키다 돛보가 그리스도교를 접하고 느낀 세계는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계이며, 일본 안에서 축소된 서양이다. 이러한 것들은 메이지정부의 서구화 정책과 상응하여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진다.

메이지 시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특색은, 종래의 그리스도교와 관련이 없었던 상류사회 사람들이 부화뇌동하여 많은 교회에 가담한 것이다. 또 그것이 주로 상류사회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보수 국수로 변해 가는 요소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메이지 20년대 사회 동향을 보면, 그것은 바로 메이지 문예부흥 또는 정신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였다²⁾. 메이지 10 년대를 유신에 이어 새로운 국가건설 시대로 규정하고, 메이지 20년 전후부터는 어느 정도 정치 운동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도덕이나 종교에 의문을 품게 된다. 국가주의 성향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자본주의도 마침내 형태를 갖추어 가는 시기가

2) 쿠야마야스시(久山康)편(1956) 『근대일본과 기독교』—메이지편—창문사, pp.70-150.

며, 개인의 자아, 민족의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문학상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쿠니키다 듯보는 「空想者」(「我過去」)라고 답하고, 코울리지를 꿈꾸고, 워즈워드를 노래하고, 번즈, 바이런을 사모하며, 지금 서양의 그리스도 교도를 꿈꾼다고 말하고 있다. 코울리지 이하의 시인 문학자와 그리스도를 동급에 놓고, 시와 종교의 사이에서, 본질적인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3. 도손에 있어서의 근대 초기 그리스도교

도손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세례를 받고 교회생활을 보내는 것에 한정한다면, 그의 신앙은 메이지 26년, 22세의 나이에 그리스도교로부터 떨어져갔다. 「느끼는 점이 있어서 기독교회의 적을 버리고」라고 연보에 적고 있다. 제자 사토 스케코(佐藤輔子)를 사랑하고, 그 고통과 자책의 마음으로 메이지 여학교를 사직하고, 이치반초(一番町) 교회의 우에무라 마사히사(植村正久)목사에게 이적 신고서를 제출한 도손은, 간사이(関西) 표백 여행을 떠나 카마쿠라(鎌倉) 원각사부터 멀리 이치노세키(一関)까지 방랑한 해도 같은 연도이다. 그 당시의 일은, 도손의 자전적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벚꽃열매가 익을 무렵』에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벚꽃열매가 익을 무렵』의 매력의 하나는 작품 속에 넘치는 그리스도교적 분위기이다. 그것은 메이지 시대의 이국정서를 느끼게 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여름학교라고 듣고 마세씨와 같이 정직하고, 눈을 둥글게 뜨는 사람은, 스테키치의 주위에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강연은 기독교 주의로 개척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세씨는 기독교신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년을 하루와 같이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을 大勝의 장부 등에서 발견한다는 것조차도, 스테키치에게는 신기한 것이었다. 마세씨는 좀 독특하다는 점에서, 『철학자』라는 별명으로 통하고 있었다. 아멘을 싫어하는 타나베의 할머니나 남편 앞에서 마세씨는 그다지 종교 냄새나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벚꽃열매가 익을 무렵』 p.457.)

도손의 교회 생활은 메이지 26년에 끝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교에의 결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창시대 점등된 신앙의 불꽃은 바람 불어 꺼지는 것이 아니고, 약한 불빛처럼 보이지만 계속 타고 있는 것이다. 이후카 카지노스케(井深梶之助)³⁾를 도손은 이후카선생이라고 부른다. 늘 이후카에 대한 경애의 마음을 품고, 그의 장례식에도 병중인 몸을 추스려서 참석한다. 도손의 진정한 신앙의 스승은 이후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벚꽃열매가 익을 무렵』에 그려진 제 2회 여름학교의 풍경은 도손의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 그리스도교를 소재로 소설을 썼던 작가들은,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또는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이 많지만, 도중에 그리스도교를 버렸던 작가도 많다. 도손뿐만 아니라, 도쿄쿠나 돗보도 신앙과 낭만주의를 혼동하고 있고, 이윽고 그리스도교로부터 배교해 버린다. 우에무라 마사히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까지의 문학에는 기독교의 용어나 정신이, 폭넓게 침투되어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문학이라고 할 만한 걸작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⁴⁾라고 말하고 있다.

메이지 시대 초대의 신자, (중략) 그들은 유일 절대의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믿고, 윤리를 깊은 「죄」의 의식까지 내면화했다. 그런데, 2대 째, 3대 째가 되자, 그리스도교를 보다 감정적, 생활적으로 파악하고, 혹은 무드로서 도취하는 것이 강하여졌다.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흥분이 식으면, 배교자의 의식 없이, 쉽게 이교하고, 또는 포기하고 떠나간다. 도손의 경우도 그렇고⁵⁾

위에서 보듯이, 학창시절 도손의 그리스도교 접근 그 자체는 심각한 종교적 고민을 수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교 또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벚꽃열매가 익을 무렵』에서도, 이치반초 교회로 옮겨서 새롭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 기시모토가, 결국 교회를 버린 것은 연애 때문이고, 신앙상의 이유는 아니었다. 그는 「덧없는 연애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나간」 것이다.

3) (1854~1940) 메이지학원 총리

4) 미요시유키오의(1972) 『明治の文学』 유배각, pp.187-191.

5) 요시다세이이치(吉田精一)(1981) 『島崎藤村』 『吉田精一著作集』 桜楓社, p.278.

잠시 스테키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창가에 걸터앉았다. 매미의 비유 등이 목사의 설교 등에 나왔다. 어둡침침한 저녁 무렵 창가의 빛 속으로 뛰어드는 작은 벌레의 상상. 무한한 인생의 향취. 설교는 점차적으로 고조에 달했다. 그것을 듣고 있으면, 스테키치의 마음은 목사의 말을 귀 울이기도 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세계로 달려가기도 했다. 스테키치 말에 의하면, 그 자신의 젊은 신앙은 시와 종교의 유치한 기분이 섞인 것 같은 것으로 어른의 철저한 신앙의 경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의 기독은 너무나도 시적인 인격의 환영이고, 그 점이 그 자신에게도 부족한 점이였다.

(『벚꽃열매가 익을 무렵』 p.552.)

여기에서는 도손을 매료한 「神」의 성격과 교회의 분위기가 나온다. 도손의 신앙은 시와 종교의 유치한 마음이 섞였던 것이다.

요시다 세이이치(吉田精一)는 도손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는 시에 취한 듯이 신앙에 취했다. 그것은 청춘의 로맨티시즘에 입각한 꿈과 같은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⁶⁾라고 지적하고 있다. 젊은 스테키치가 그리스도교에 입신한 이유는, 성찬식과 같은 교회 행사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남녀의 교제에 있었다. 그것이 교회내의 분위기와 함께 일종의 이국정취를 불러 일으켜, 젊은 그를 매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금」이라는 현실에 부딪쳤을 때, 그의 꿈은 깨어지고, 실망만이 남았다. 결국 그리스도교는 신앙보다도 무드로서 도손을 매혹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교 신학적인 주장보다, 그리스도교 신자의 사랑과 친절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는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회의보다도, 실제로 그리스도교회의 경직성과 세속적인 추함 때문이다.

스테키치는 이렇게 생각에 빠졌다. 간음하지 마라, 처녀를 범하지 마라, 형수를 취하지 마라, 그 외 일체의 부덕은 여호와 신이 경계하는 것이다. 바이런의 인생은 도저히 신이 즐거워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영국의 시인이 이태리에 놀러 갔을 때에 베니스의 거리에서 적령기의 딸을 가진 집의 어머니는 그 미모로 방종한 사람을 보지 않게 하려고 창문을 닫았다고 하지는 않았

6) 동주 5) p.279.

던가? 그래도 만물을 비판하는 듯한 바이런의 시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매혹하는 것일까? 그 매력은 무엇일까?

(『벚꽃열매가 익을 무렵』 p.487.)

여기에 묘사한 현실과 인생에 대한 회의는 스테키치의 모순의 표백이었다. 이하라 사이가쿠(井原西鶴)의 『호색일대녀(好色一代女)』를 찢어버린 키시모토는, 신성한 구약성서 속에서 가능한 한 외설적인 부분을 주어서 읽었던 남자이기도 하다. 높은 정신세계의 동경도, 관능의 세계에의 욕구도 공히 거짓이 없는 키시모토의 현실이었다. 이 모순이 키시모토의 우울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이토 카즈오(伊東一夫)는 도손의 교회이탈 문제는, 「교회와 신교에의 비판과 반항이었지, 그리스도교 그 자체의 반역 혹은 부정은 아니었다」⁷⁾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손이, 그의 마음 속에서, 신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입장을 잃은 사정에 대하여, 사사부치 유키치(笹淵友一)는 이렇게 논하고 있다.

기독교적 절대신에서 범신론적 자연으로, 도손의 최고 가치개념이 바뀌었을 때, 도손의 기독교 신자로서의 입장은 사라졌다고 생각된다. 그 때는 거의 메이지 27,8년의 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사상적 입장이 프로테스탄트에서 휴머니즘으로 완전히 이행한 것을 의미한다⁸⁾.

그리고 사사부치 유키치는 도손의 시가 성서와 찬송가를 모테로 하여 성립한 사정을 고찰하고, 「크리스트교는 도손 문학의 하나의 원천이었다」, 「비그리스도교적 내지 반그리스도교적 시정이 그리스도교를 매개로 하여 성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시정 자체가 심화, 내면화되었다」⁹⁾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점에서 야마모토 켄키치(山本建吉)는 「일견 신앙을 버린 것 같으면서도, 그에게 문학이 종교와 계율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룬 적은 한 번도 없다. 그의 문학은, 종교와 계율과 죄의식에 언제나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의 우울과 은둔적 기분을 자아내게 한 것은, 메이지학원의 칼빈주의

7) 이토카즈오(伊東一夫)(1969) 『島崎藤村研究—近代文学研究方法の諸問題—』 명치서원, pp.815-820.

8) 사사부치유키치(笹淵友一)(1960) 「『文学界』とその時代」 下 명치서원, pp.310-320.

9) 사사부치유키치(笹淵友一)(1960) 「『文学界』とその時代」 下 명치서원, pp.310-320.

이었을런지도 모른다」¹⁰⁾고 지적한다. 요컨대, 초기의 도손문학은 그리스도교를 매개로 하여 성립하였지만, 이윽고 동양적인 신비 혹은 범신론적 자연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상이 도손에게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시마자키 도손 문학의 근간에는 그리스도교, 그것도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있다. 그의 문학은, 「시가(詩歌)는 조용한 곳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감동이다. 실로 우리 노래는 무서운 고투의 고백이다」¹¹⁾라고 한 선언이 출발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근대적인 자아를 의미하는 유럽적 의미의 고백이다. 시마자키 도손이 본격적으로 문학 수업에 들어간 것은 20살 무렵이며, 그가 가장 애독한 서적은, 루소의 『참회록』과 르낭의 『예수』이다. 이 두 권은 시마자키 도손같은 청년들이 공통으로 애독하는 책으로, 이 중에서 루소의 『참회록』의 영향은 컸다. 교회 생활은 그에게 고백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도손이 자기 형성을 해 왔던 「문학계」 동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교 사상이 침투해 있었다. 그들이 주장해 왔던 자유연애, 그 반동으로서의 육육을 <죄>로 인식하는 태도, 그것이 도손문학에서 일생동안 관철하는 영육의 싸움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영향은 찬미가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교 포교활동을 위하여 찬미가는 일본어로 번역되고 일반인에게 유포되어, 그것이 도손에게서 새로운 시형으로 채택되어, 이 점에서 도손의 시법이 완벽하게 탄생한다.

황혼에 조용히/꿈꾸며/즐거운 그곳에 나는 가네/사모하는 당신과 손을 잡고/
어두운 저 세상까지도 달려가네/우울함과 고민을 나의 신에게/맡기는 것을/기
쁨으로 삼네
(「니게미즈(逃げ水)」 p.60.)

찬미가는 화려한 연애시(詩)로 변하고 있었다. 이 『와카나집』(若菜集)의 「니게미즈(逃げ水)」는 우에무라 마사히사의 『신찬찬미가』의 패러디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카메이 카츠이치로(亀井勝一郎)는 이 「니게미즈」에서는 「<기도>는 <꿈>으로 되고, <신>은 <너>가 되며, <은혜>는 <사랑>이 된다」— 여기에 「일종의 배신」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난 「이교도의 미에 도취」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도손이 「시도해 본 제 1의 과제」¹²⁾이었다고

10) 「読売新聞」(1963)

11) 『도손전집』 제1권, p.5.

한다. 미요시 유키오(三好行雄)는 「찬미가의 개변이라는 시도에서 이미 배교(背敎)적인 『니게미즈』는 사랑 때문에 신을 버린다는 주제에 있어서 한층 더 배교적이다」¹³⁾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도손에게 배신감과 배교란 의식의 선명한 자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랑은 죄가 되고/죄야 말로 사랑」이라고 노래하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죄>의 자각은, 죄를 굳이 인간 긍정의 개안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안타까운 노력에 불과하다.

이 「니게미즈」가 우에무라 마사히사의 「신찬찬미가」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깊다. 당시 구약 시편·아가 등 우아한 노래 등의 번역, 「신찬찬미가」(메이지 21년)는 메이지 신체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에무라 마사히사에 의해 워즈워스·테니슨·브라우닝 등 외국 문학의 소개, 비평 등 「문학상의 이상주의」가, 「문학계」동인의 낭만주의 운동을 낳게 하는 매개가 된 것은 문학사상 널리 알려져 있다. 우에무라 마사히사의 평문이 문학을 국민 계몽, 교도의 도구로 하는 문학관에 있었던 사실도 주지하는 바이다. 도손의 「니게미즈」를 통해서, 메이지시대의 그리스도교 프로테스탄티즘의 작가의 단면을 엿볼 수가 있다.

도손의 아버지 시마자키 마사키(島崎正樹)도, 또한 막부 말기의 유신에 걸쳐서, 새로운 시대로의 기대와, 그 환멸에 의한 우국에 의해 광사한 불행한 사람이었다. 『도손시집』序에서 「청신황일한 사조」 「근대의 비애와 번민」은 도손의 아버지, 마사키가 믿은 국학, 히라타학에 의한 존왕사상과는 전혀 다른, 유럽에서의 개인주의 원리에 입각한 낭만사상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교적 이상사상이기도 했다.

4. 『과계』의 그리스도교적 요소

『과계』는 초등교원 세가와 우시마츠(瀨川丑松)가 하숙을 전전하는 사건이 발단이다. 그 뒤에는 같은 하숙생인 오히나타가 피차별 부락민이기 때문에 배척받는 것을 우시마츠가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분개하거나, 동정한다던가

12) (1993년) 「『시마자키 도손론』 미요시 유키오저작집 제1권」 pp.50-70.

13) 동주 12), pp.50-70.

하는 심리적 동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시마츠는 나가노 사범학교를 나온 열정적인 청년 교사로서 이이야마의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식인이었다. 그런데 눈앞에 피차별 부락민인 오히나타에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박해를 목격한 것이다. 오히나타의 신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다’. 언젠가 자신도 잔혹한 대우를 당하지 않겠는가. 우시마츠는 이때부터 일본 사회의 폐쇄성을 의식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눈을 뜬 것이다. 「지금은 스스로 숨기려고 생각하게 되는」(『과계』 제1장3) 것이다.

우시마츠는 비밀이 폭로됨으로서 예상되는 사회적 비판과 윤리적 비판 때문에 공포에 떠다. 그러나 그것은 『신생』에서 세츠코가 키시모토에게 임신한 것을 고백할 때의 공포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키시모토의 비밀에는 불륜을 저지른 죄 의식이 작용한, 말하자면 자업자득이라는 개인적 행위 때문이다. 그것에 반하여, 우시마츠의 혈통은 일단 사회적으로 드러나면 복권은 불가능하다. 「추방이나 죽음이나」 뿐이다. 이 신분 차별은 우시마츠가 수수방관하고 손을 놓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스테키치의 비밀이라는 자기 윤리성이 강한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 발각되면, 피차별 쪽으로 전락하는 사회성을 가진 것이다. 키시모토의 고백 동기가 조카와의 불륜 관계에 대한 죄의식이라면 거기에는 종교적인 요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시마츠의 고백 동기는 그러한 죄 의식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윤리적으로는, 종교적 요소를 생각할 수 없다. 우시마츠의 고백이 「사회 정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공언할 수 없는 자신의 비열함에 대한 자책감에 동기가 있었다면, 또 우시마츠를 가택한 도손이 학대 받은 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시마츠 아닌 도손의 고백에, 종교성을 찾아낼 수」¹⁴⁾가 있다.

『과계』는 알려진 대로, 피차별 부락민 우시마츠를 주인공으로, 아버지가 그 신분을 「숨기라」고 해서 그 계율을 지켜야만 하는 우시마츠의 고뇌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우시마츠의 운명은 이노코 렌타로와의 해후에 의해서 변한다. 이노코 렌타로에 「이끌려서 새로운 세계를 전망」한 우시마츠에게는 「아침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새로운 생애」가 열린다. 그것은 먼 꿈의 세계가 아니었던가.

오히려 우시마츠의 가슴을 찢른 것은, 이노코 렌타로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14) 김태진 (1987) 『藤村文学の宗教性』 「韓國外國語大學校」

『번민의 역사』이고, 신분의 발각과 추방에 대한 불안이 아니었다」¹⁵⁾라는 것이다. 백정이라는 숙명을 짊어진 우시마츠는 작자 도손에 의해 두 관점에서 고뇌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하나는 신분 은닉이 발각해서는 안 된다는 고뇌, 이 고뇌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의심하고, 인간 불신에 빠지게 되고 굴절된 기이한 행동을 한다. 하숙집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차별받으면서 부락 해방 운동에 전념하는 이노코 렌타로에 다가가간다. 그러나 털어놓고 싶은 자신의 신분도 심경도 말하지 못하고, 또 소문이 날수록 친구인 킨노스케와 연인 시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런 거동이 눈에 띄는 인간이 된다. 두 번째는 신분을 고백해 버릴까 하는 고뇌, 이 고뇌가 원인으로 신분 은닉에서 인간 불신에 빠지고, 그것이 동시에 자기를 속이고 허식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각으로 이어져, 「나는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가지고 타고난 자연의 성질을 쇠마(鎖磨)하고 있다」라고 깨달아, 「계(戒)」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욕구로 부터, 고백하려고 고뇌하는 것이다. 다음에 고백의 고뇌에 초점이 모아진다. 고백에서 구제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작자의 사회적 휴머니즘의 태도이다. 신분 은닉의 「戒」를 깨뜨린다는 고백이야말로 자기희생이다. 고백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제될지 어떨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금처럼 허용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戒」란 정신의 속박을 스스로 깨고, 스스로 해방을 얻고 싶다는 강한 희망이 있다. 이 때, 사회적 용인은 나중 문제가 된다. 우선 아버지의 「戒」를 깬다는 것은 육친의 피로부터 해방이다. 이 점에서 『과계』는 고백 소설로서의 성격이 강해진다. 사회적인 자기희생은 우시 마츠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고백 후 그의 인생은 실제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작자 도손은, 고백 이후의 구체적인 구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배경에는 이념적, 관념적인 구제관이 있었던 게 틀림없다. 여기에도 작가 독자의 종교성이 발견된다.

『과계』의 주제는 주인공인 세가와 우시마츠의 <과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계』론은,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작자에 의한 주제의 해결 방법에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소설인지, 고백소설인지 평가가 이분된다.

15) 佐々木雅彦 (1983) 「『破戒』試稿—自立への道—」 『島崎藤村Ⅱ』有精堂, pp.92-106.

과계의 고백은 지극히 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부락민 출신자가 교육자인 것에 대한 사과, 요컨대 봉건적 신분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면 서로 자기들만이 그렇게까지 경멸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격앙된 레지스탕스에 저촉(抵触)되는 것이다¹⁶⁾.

『과계』는 우시마츠의 「과계」이다. 그러나 『과계』에서의 「고백은 지극히 저차원」이란 것으로, 진정한 「과계」는 도래한 것이 아니다. 제 2의 「과계」, 혹은 제 3의 「과계」가 만들어 질 것이다. 「깨달은 사람의 슬픔」은 <저차원의 고백>에 의해, 스스로를 재생시키는 내면적인 해방이 요구된다. 도손에게 고백은 그의 인생이 걸려 있다. 고백은 도손 자신의 「구도적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또 그의 문학적 생애를 관철하는 삶의 기초」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는 종교적 성격이 주제의 핵심이 된다. 도손 문학은, 『와카나집(若菜集)』 이후 자기 응시에서 오는 자기 고백 문학이라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시마츠 위에 작자 도손이 훌륭히 반영되어, 나즈메 소세키(夏目漱石)는 「경박한 것만 읽고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 이런 진실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메이지 시대에 소설다운 소설이 나왔다고 하면 『과계』라고 생각한다」¹⁷⁾라고 평했듯이 일본에서의 최초 근대소설로서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계』는 일본사회의 봉건성이란 이유로, 같은 인간이면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피차별 부락민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그 주제에 흐르는 사상, 즉 피차별 부락민도 같은 인간이라는 관념은 기타무라 도코쿠의 『내부 생명론』에 제시된 그리스도교의 인격 관념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작품에서 우시마츠는 신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우시마츠에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한다면, 이노코를 신으로 경모하여 참회 고백하는 심정에서 종교성이 엿보일 뿐이다. 이것은 신을 떠나면서도, 도손의 그리스도교적 세계에 대한 사모에서 나온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6) 하세가와이즈미(長谷川泉)(1958) 『近代名作鑑賞』至文堂, pp.120-125.

17) 森田草平에게 보내는 편지

5. 나가기

본 논문은 도손과 초기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를, 도손의 그리스도교의 영향 및 그리스도교의 수용과 이반(離反)을 통하여, 시마자키 도손의 고뇌·갈등의 문학적 의의를 초기 작품 시와 『과계』를 통해서 고찰한 논문이다.

도손이 서양 근대사조, 르네상스의 그리스도교 수용, 근대정신에 의한 자아 각성은 낡은 도덕·가치관에 지배되는 사회와의 충돌, 근대정신과 낡은 도덕·가치관과 어떻게 부딪혀 나가는지 고찰했다. 메이지 말기 도손이 그리스도교를 접하고 느낀 세계는 일본 안에서 축소된 서양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메이지정부의 서구화 정책과 상응하여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

당시 그리스도교 교회의 특색은, 종래의 그리스도교와 관련이 없었던 상류사회 사람들이 부화뇌동하여 많은 교회에 참가한 것이다. 또 그것이 주로 상류사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보수 국수로 변해가는 요소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메이지 20년대 사회 동향을 보면, 그것은 바로 메이지 문예부흥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곧 이어서 메이지 20년 전후부터는 어느 정도 정치운동도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도덕이나 종교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리스도교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권력의 압박을 받게 된다. 이 국가주의 시기는 서구화주의 시기와 겹치면서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교육 칙어에 있어서의 종교상의 의식과 교육 금지 등 현실로 보이는 형태로 압박이 시작되어, 마침내 그리스도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도손에게는 개인의 자아, 민족의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문학자로서의 자각과 동시에 작가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작가적 영위를 누리게 된다. 같은 자연주의 작가이면서도 도손, 쿠니키다 듯보, 마사무네 하쿠초 등 프로테스탄트 세례를 받은 작가들과, 다야마 가타이, 도쿠다 슈세이, 치카마츠 슈코 등 그리스도교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던 작가들과는 리얼리즘에 차이가 있다. 도손의 초기 자연주의적 리얼리즘은 그가 그리스도교 인임을 무시할 수 없는 문학적 잔재(殘滓)로 나타난다.

[付記]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작품의 모든 인용은, 筑摩書房판 『도손전집(藤村全集)』에 따른 것이며, 한글번역은 논자가 행함.

【참고문헌】

- 하세가와이즈미(長谷川泉)(1958) 『近代名作鑑賞』 至文堂 , pp.120-125.
미요시유키오외(1972) 『明治の文学』 유배각, pp.187-191.
사사부치유키이치(笹淵友一)(1960) 「『文学界』とその時代」 明治書院, pp.310-320.
요시다세이이치(吉田精一)(1981) 『島崎藤村』 『吉田精一著作集』 桜楓社, p.278.
(1983) 『島崎藤村』 II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有精堂, p.150-225.
이토카즈오(伊東一夫)(1969) 『島崎藤村研究—近代文学研究方法の諸問題—』 명치서원, pp.815.
(1971) 「国文学解釋と教材の研究〈島崎藤村と日本の近代〉」 4월호, pp.10-50.
(1974) 「解釋〈特集・島崎藤村研究〉」 pp.80-99.
(1990) 「解釋と鑑賞〈島崎藤村の再検討〉」 pp.180-95.
임성규(1996) 『시마자키도손연구』 관악사, pp.2-3.
쿠야마야스시(久山康)편(1956) 『근대일본과 기독교』 —메이지편—창문사, pp.70-150.
「島崎藤村研究」 「風雪」 第一集~第十集

논문 투고 일자 : 2016. 09. 30.
논문 심사 일자 : 2016. 11. 02.
게재 확정 일자 : 2016. 11. 03.

<要旨>

藤村の初期の詩から『破戒』頃までの考察
—近代・キリスト教への受容—

林盛奎

本論文は藤村と初期キリスト教との関係を、藤村の初期作品、詩と『破戒』を通じて考察した論文である。明治文学を担った作家たちは青年時代にキリスト教に入信したり積極的な関心を見せているが、作家として成熟するにつれ、キリスト教を離れる者が多かった。または信仰的な信念は失わないが、異端的信仰に熱中して心酔する者も現れた。明治文学を担い、キリスト教の洗礼を受けた作者たちの大半が若い時代にキリスト教を去っているのである。信仰の告白によって洗礼を受けた彼らが、作家としての成熟度が深まれば深まるほど教会を離れて信仰を捨てるという問題をどう解釈すべきだろうか。また、彼らの殆どが背教という形で文学を作り出す理由は何だろうか。本論文は藤村へのキリスト教の影響及び彼のキリスト教への接近と離反を通じ、島崎藤村の苦悩・葛藤の文学的な意味を各作品に即して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藤村は、個人の自我、民族の自我が芽生え、文学者としての自覚を持つとともに作家としての人生を歩み始め、キリスト教信仰が曖昧な状態のまま、作家的営為を享受するようになる。同じ自然主義作家でありながら、藤村、国木田独歩などプロテスタントの洗礼を受けた作家たちと、田山花袋、徳田秋声、近松秋江などキリスト教とはほとんど関係がなかった作家たちとの間にはその作品におけるリアリズムにおいて差が見られる。藤村の初期の自然主義的リアリズムは、彼がキリスト教信者であることによる無視できない文学的な残滓として現れているのである。

Early poetry to *The Broken Commandment* (破戒, *Hakai*)
—Christianity in Tōson Shimazaki's Works —

Im, Sung-Gyu

The writers who led Japanese Literature during the period of the Meiji Restoration(1868-1912) joined Christianity or had a strong interest in Christianity in their youth.

This paper briefly describes the perspective of Christianity of the young baptized authors during that period. And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ir view of Christianity changed and why they become renegades and left the churches. This is followed by key issues of Tōson's thoughts on Christianity in his transition from Christianity to apostacy with respect to his distresses and conflicts in his works.

Tōson was baptized in the university, but Christianity did not lastingly affect either his thoughts. Through a study into Tōson's perspective on Christianity, this paper presents the clash of old and new values and the turbulence in a Japan feverishly modernizing itself during the period of the Meiji Restoration.

Tōson deals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struggles of men on the fringes of society and with the tension between his worldliness and the Christian spirituality in a community that preached morality and ignored humanity.